

센(Sen)의 능력 접근을 통한 빈곤 여성가장 가계의 생활실태에 대한 질적 평가

이 성 립(성균관대학교 부교수) · 손 상 희(서울대학교 부교수)
진 미 정(서울대학교 부교수) · 성 미 애(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조교수)

본 연구는 센의 능력 접근을 통해 빈곤 여성가장 가계의 생활실태를 파악하면서 이들의 빈곤 상태를 질적으로 평가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빈곤상태는 소득이나 자원을 중심으로 평가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기능과 그 기능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한 아마티아 센의 빈곤 개념에 따라 빈곤에 접근하였다. 2006년 11월 11일부터 2007년 1월 13일까지 유아기부터 고등학생까지의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가장 26명을 대상으로 Focus Group Interview와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빈곤 여성가장 가계에서 성취한 기능은 건강 영역에서 ‘경증 질환 치료’, 식생활 영역에서 ‘가족원 세끼 식사’, 의생활 영역에서 ‘여벌옷 보유’, 자녀양육 및 교육 영역에서 ‘고등학교 졸업’ 등 주로 생존 수준의 기능에 한정되어 있다. 둘째, 부분 성취한 기능은 수준별로 볼 때, 생존 수준 기능에서는 일과 노동 영역에서 ‘생계가능 소득 획득’, 건강 영역의 ‘노동활동 유지’, ‘정상적 성장발육’, 주생활 영역에서 ‘독립된 주거 확보’, ‘단독 화장실 사용’, ‘적정한 채광 및 통풍’, ‘공과금 감당’, 여가/문화생활 영역의 ‘육체적 피로회복’, 자녀양육 및 교육 영역에서 ‘정서/행동문제 통제’ 기능들이다. 사회적 통합 수준 기능에서는 일과 노동 영역에서 ‘야간과 휴일 휴무 가능’, 의생활 영역에서의 ‘뜨래와 어울리는 옷차림’, 그리고 자녀양육 및 교육 영역의 ‘친구와 어울리기’, ‘대학교육 지원’ 등이었다. 성장 수준에서 부분 성취된 기능은 여가/문화생활 영역의 ‘자녀의 문화체험’, 자녀양육 및 교육 영역의 ‘체험학습 지원’ 뿐이었다.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능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과 자유를 강조한 센의 이론에 비추어볼 때, 현재의 복지서비스는 빈곤여성가장 가족이 기초적인 생존을 도와주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사회적 통합이나 성장의 기능을 성취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입각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다.

첫째, 빈곤 여성가장 가계의 경우 일과 노동, 건강, 주생활, 자녀양육 및 교육 영역에서의 생존 차원 기능의 성취는 주로 정부의 가계지원 서비스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빈곤 가계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건강, 주거, 노동 분야의 복지 서비스 지원의 확충이 지속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지원 정책은 노동연계복지 프로그램을 지향하고 있는 정책 기조에서는 사회적 투자의 한 영역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둘째, 현실적인 빈곤한 생활수준뿐만 아니라 소비만능사회에서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데서 경험하는 사회적 낙인이나 수치심 등이 빈곤 여성가장이나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 이러한 요인은 사회적 통합에도 장애로 작용한다.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나 서비스의 콘텐츠를 기획할 때에도 생존 차원의 기능만 고려하는 것에서 벗어나 사회적 통합 차원이나 성장 차원까지 고려하는 복지서비스 소비자에 민감한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